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의 춤 시리즈' 일환 현대무용가 이선아 창작공연 성료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우수 무용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한국의 춤 시리즈' 일환, 첫 번째 공연으로 이선아 현대무용가의 두 편의 창작 무용 <Dancing Dance for me>와 <Dis Cove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 공연은 2월 8일(화)과 2월 9일(수) 양일간 문화원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다.



안무가 이선아는 독특한 스타일의 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안무로 국내외 유수의 무대에서 인정

받고 있다.

총 2부로 구성되어있는 이번 공연에서 이선아는 무용과 영화가 어우러진 솔로 공연 <Dancing Dance Forme>에서는 무용수로, 그리고 국립현대무용단이 제작한 <Dis Cover>에서는 예술 감독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1부 공연인 <Dancing Dance For me>는 이선아 본인이 ‘서울에 사는 현대 무용수’ 역할로 출연한 단편영화로 시작됐다. 여기에서 영화는 공연의 배경적 요소로만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무대 위의 무용수가 영화 스토리로 들어가 무대와 영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압축한다. 서울 풍경 속 연인과의 이별을 회상하는 무용수의 감정은 이선아의 움직임을 통해 무대에서 마치 거울처럼 표현된다.

영화와 춤에 관계에 대한 색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본 공연은 2016년 제주 프랑스 영화제에서 초연된 이후, 프랑스 유수의 극장 및 무용 축제에 초청되며 프랑스 평단의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2부에서는 이선아가 예술 감독으로 창작한 작품 <Dis Cover>가 소개됐다. <Dis Cover>는 김은경, 허은경, 정재우 3명의 무용가가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 자리한 정신적 억압과 어둠을 직면하고 그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춤으로 꺼내 보이는 작품이다. 프랑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현화 작곡가가 음악을 맡아 공연 특유의 매력을 한층 더하였다.

본 공연은 2021년 국립현대무용단의 '안무랩'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으며, 올해 1월,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안무가 앙중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 레지던시에 초청, 발표된 신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안무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국립현대무용단 창작활성화사업 작품 <Dis Cover>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현대무용계에 공식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전해웅 문화원장은 “본 공연이 프랑스 유수의 국립기관에 공식 초청된 점과 이를 문화원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기쁘다.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관객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의 춤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